

해설 시나리오

1. 프로그램 진행 개요

프로그램명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문화해설	해설사	박인숙
해설주제	백양골 아기단풍나무가 들려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비한 자연이야기		
대상 및 인원	초등학생, 20명	소요시간	20분

2. 세부 시나리오

-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박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저와함께 “백양골 아기단풍나무가 들려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비한 자연이야기”를 주제로 백양골 자연관찰로를 탐방하겠습니다.
이곳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나고 싶은 자연친구는 누구입니까?
나무이름, 야생동물, 여러새들 중 자기가 만나고 싶은 자연친구는 누구인지 손들고 소개해줄 친구 누구일까요?

- (저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 어떤 자연친구가 보고싶어요
-(다람쥐요)
-(멧돼지요)
-(수달이요)
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자연친구들이 다양하네요
이곳 내장산국립공원에는 아주 다양한 동,식물 친구들이 살고있습니다.
여러 자연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탐방로로 출발하기전에 2명씩 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짝을 이룬 두사람이 마주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친구들을 찾아 출발! (구름다리 지나 아기단풍나무 군락지로 이동)
(아기단풍나무 군락지 앞)
옆에있는 짝궁과 마주보며 웃어보겠습니다.
하 하 하 기분 좋게 하 하 하 웃어보세요
- (하 하 하 , 하 하 하)
서로 서로에게 기분 좋은 자연친구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분 좋아서 웃는 것보다 웃으니까 기분이 더욱 좋아지네요.

- 손을 짚어서 들고 옆에 있는 짚궁과 하이파이프 해봅니다.

- 딱악 딱악 힘찬 소리가 나도록 서로가 박자를 맞추어 하이파이프 해봅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과도 손을 짚어서 하이파이프 해봅니다.

선생님과도 하이파이프 해봅니다.

- (짹 짹)

자! 이제 우리의 짹 펼친 손을 우리곁에 서있는 나무의 잎과 하이파이프 해보세요
어때요 하이파이프 됩니까?

- (안돼요)

-왜안되나요

- (잎이 너무 작아요)

네 나뭇잎이 작아 우리의 손과 하이파이프와 안되죠 하지만 이조그마한 나뭇잎과
하이파이프 되는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할머니손일까요? 엄마손일까요?

- (아기손이요?)

네 맞습니다. 아기손이 이나뭇잎과 하이파이프 할 수 있습니다.

아기손처럼 조그마한 나뭇잎을 가졌다해서 이나무의 이름을 아기단풍나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단풍나무 종류는 몇종류가 있을까요?

100여종류일까요? 130여종류 일까요?

- (130종류요)

-네 맞습니다. 130여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풍나무 종류가 몇종류가 있을까요?

10종류 일까요? 15종류일까요?

- (15종류요)

-네 맞습니다. 15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장산국립공원에는 내장단풍과 아기단풍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아기단풍나무는 이곳 백양사지구에 말밭굽형태의 지형과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아기손같은 나뭇잎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백양골에 추운겨울이 오면 여기에 살고있는 아기단풍나무는 어떤모습일까요 ?

잎들도 씨앗도 모두 떨어지고 빈가지만 달려있는데 유심히 관찰해보면

바로 바로 겨울눈이 그렇게나 신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나무들의 겨울눈을 본적 있지요

나무마다 겨울눈들이 모두 다르는데 그중에 백양골 아기단풍나무의

겨울눈은 마치 빨간빛을 띤 아기사슴발처럼 생겨서 한번보면 가슴이 뭉클해
진답니다

추운겨울이 지나면 그곳에서 새순들이 나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단풍나무의 꽃을 본 친구는 번쩍 손을 들어 주세요?

- (번쩍 손드는 친구)

-네 우리 친구 단풍나무의 꽃을 보았네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단풍나무의 꽃은 아주 작아서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곳 백양골 숲속에 따스한 햇빛이 내리는 봄이 오면 아기단풍나무의 겨울눈에서 연두빛 새순들이 피어납니다.

백양골 자연관찰로가 아기단풍나무의 새순들로 연두빛 길이 되었을 때 연두빛 새순아래로 꽃받침이 빨갛고 꽃잎이 하얀 별사탕처럼 생긴 조그마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백양골 자연관찰로에 아기단풍나무 꽃들이 절정을 이룰때는 4월말~5월초입니다.

집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로 심어있는 단풍나무의 꽃들도 이시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별사탕 요정처럼 생긴 단풍나무꽃들을 만날 수 있을것입니다.

한여름날의 나무들은 열매를 키우는데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백양골의 아기단풍나무들도 부지런히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씨앗들을 키우지만 이씨앗들이 모두 발아할 확률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처럼 어렵습니다.

씨앗을 멀리 날려 보내주는 바람과 씨앗을 품어주는 건강한 흙과

양분을 만들어 주는 비와같은 여러 자연친구들의 도움으로 싹을 피울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있는 아기단풍나무들은 아기일까요? 어른일까요?

- 네 잎이 아기손 닮았다해서 이름에 아기가 들어갔지만 이나무는 씨앗이 많이 달려있는 어른인 아기단풍나무입니다.

이 아기단풍나무가 어디에도 못가고 일생동안 이곳에서만 서있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곳곳하게 지낼수 있는 것은 아기단풍나무 씨앗들이 바람에 훨훨 날아가 백양골 이곳 저곳에서 튼튼하게 잘자라는 것이 랍니다.

어느날 무심코 단풍나무의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관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긴타원형의 날개가 달린 단풍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프로펠러가 돌 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헬리콥터 날개에 프로펠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백양골 아기단풍나무가 들려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았을때보다 아기단풍나무가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네 앞으로도 자연친구들에게 관심갖는 것 잊지마세요

옆에 있는 우리친구에게도 관심의 웃음 보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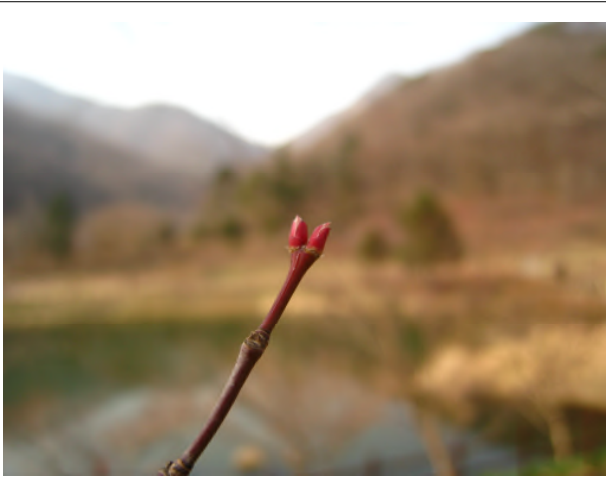
서로마주보며 하하하 하하하 웃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백양골 자연관찰로 탐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내장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p6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그룹스터디발표자료》 (P159)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남부사무소



추운겨울 백양골 아기단풍나무의 아기사슴발자국처럼 보이는 빨간색갈의 겨울눈



백양골에 따스한 봄이오면 겨울눈에서 연두빛 새순이 피어나는 모습은 가슴을 몽클하게 합니다



백양골에 아기단풍나무 꽃이 만발하는 봄이 봄이 왔습니다.



아기단풍나무 꽃이지고나면 바로 그 자리에 씨앗이 자라 가을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여름날의 아기단풍나무와 함께 걷는길



단풍이 물든 가을날의 아기단풍나무와함께걷는길

